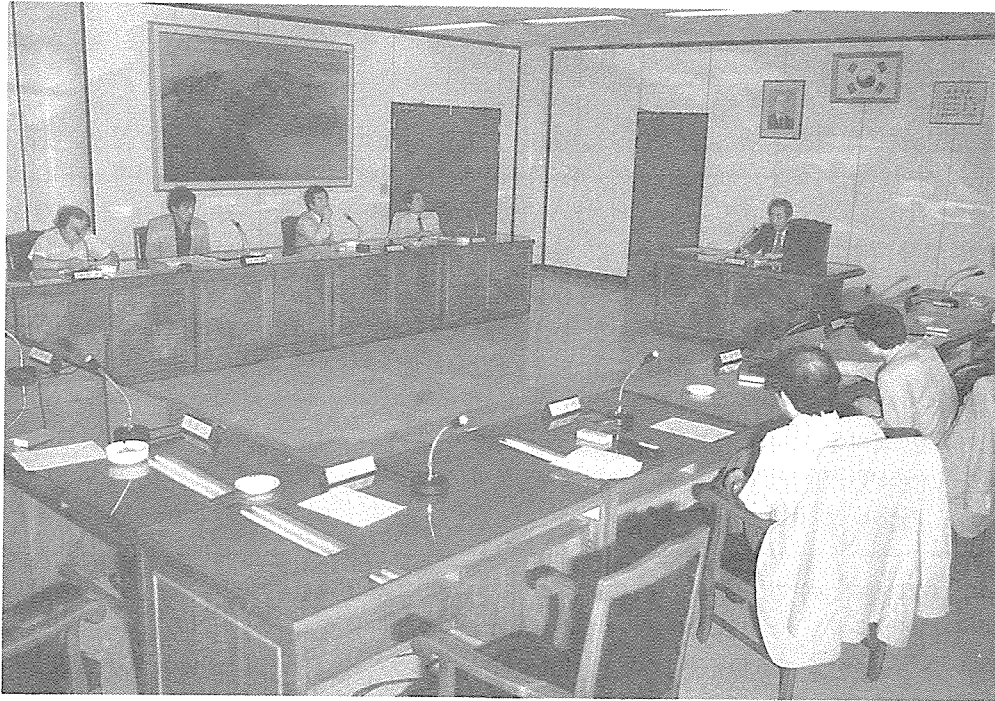


建築設計에 있어서의 室內디자인



일시 : 85년 7월 18일 (목) 오후 4시

장소 : 본협회 회의실

참석 :

- 본협회 실내디자인분과위원
曹龜鉉, 金圓錫, 劉圭成
- 본협회 이사
俞景哲
- 본협회 회원
尹承重, 金正湜
- 실내디자인어협회원
文信珪, 孫錫辰, 趙聖烈
- 흥익대 공대 교수
金成國
- 인하대 교수
元正洙

사회 : 曹龜鉉 (본협회 실내디자인
분과위원장)

司 會 - 인사말씀 (생략)

실내 디자인에 대한 좌담회를 통해 실내 디자인의 방향 설정을 하고 금년 가을 안으로 실내 디자인 공사 진행에 필요한 일체 도면과 구상 스케치를 넣어 작품집을 만들고 86년 3월에 좌담회와 작품집을 토대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실내 디자인에 관한 관심을 새로이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의 좌담회를 위한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吳雄錫 -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본협회 회관을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내디자인 분야가 전문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 의해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건축물을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크게 보면 건축의 일부분으로서 건축사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할 분야이기는 하나 역시 그 전문성을 고려해 볼때 깊이있는 단독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협회에서는 종합적인 하나의 건축물을 설계해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문제를 안고 있는 이상 실내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U.I.A. 기구를 살펴 볼때에도 실내디자인 위원회를 두

고 연구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실내디자인 분야를 소홀히 다뤘지만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협회에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건축물을 완성해 나가기 위한 공동 목적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같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좌담회가 실내디자인의 발전적 계기가 되도록 기탄없는 의견 있으시길 바랍니다.

司 會 - 오늘 좌담회의 주제는 "건축 설계에 있어서 실내 디자인분야"에 대한 것인데 먼저 그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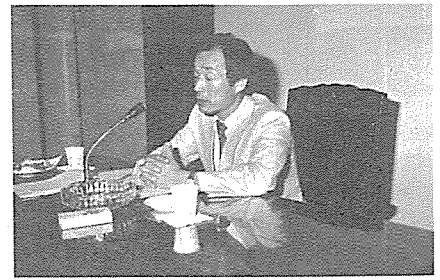
趙聖烈 - 저의 한국 인테리어 협회가 설립된지 6년정도 됐는데 과학기술처에 등록 이라든지 협회 명칭을 쓰는 문제에 있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1950-1960년대까지는 실내장식, 실내장치라는 말을 많이 썼고 저희가 학생때는 실내의장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 가장 가깝게 쓰여진다고 하는 말이 실내건축입니다. 그 근원이 미국과 유럽 쪽이 또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 (Design)" 또는 "인테리어 데코레이션 (Decoration)"이라 칭하고 유럽에서는

“인테리어 아키텍처(Architecture)” 또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라고 많이 쓰이는데 유럽쪽에서 쓰고있는 “인테리어 아키텍처”란 말이 인테리어 디자인의 업무영역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말이 아니냐고 보고 앞으로는 “실내건축”이라고 쓰여질 것 같습니다. 실내건축이라 함은 건축의 실내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 생활을 보다 쾌적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과거 유명 건축가를 보더라도, 실내 디자인은 건축이 포괄적으로 모두 소화해 왔습니다. 단지 건축의 양상이 달라졌고, 건축의 요구 조건이 보다 복잡해 졌으며, 건축의 업무량이 확대되어 건축의 복합적인 요소로 볼때 전문분야가 점차 세분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의 제요 구조조건을 잘 충족시키려면 세분화된 전문분야가 각기 발달하고 통합되고 협동하여야 보다 좋은 건축물이 나올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개인 의견으로는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의 업무 한계가 좀더 앞으로 연구되어서 협동하고 합리적인 업무관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그 길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갖는 것이 좀 더 유익한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司 會 - 사실은 본협회 실내디자인 분과 위원회에서도 회의 당시에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아키텍트와의 작업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 디자인의 정의와 개념 뿐만 아니라 아키텍트와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작업범위에 관한 것

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正湜 - 설계를 하다보니 아무래도 인테리어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각도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과의 업무한계 구분은 매우 애매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지만 상호 협동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자인하는 설계과정을 보면 건축가들이 안을 만들어 그것에 대한 기둥이나 보간격등 대략 간단한 구조적인 것까지 모두 계산해 놓고 구조 계산하는 분한테 계산만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테리어 디자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건축사들이 건축물에 대한 실내디자인을 우선 대략 다해놓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필요하다는 경향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디자인인지 데코레이션인지 한계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가 넘어오는 것이죠. 인테리어도 건축가들과 더불어 공동 작업이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인테리어 디자인과 건축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협조를 서로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 부터도 서로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뒤따르는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금전문제가 야기됩니다. 설계자가 인테리어에게 업무를 나눠줘야 하는데 어디까지 업무를 분리할 것이며, 금전은 얼마나 지급을 해야 할 것인지 둘째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부탁할때, 가령 오피스 건축물인 경우 어디에다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인지등 여러 어려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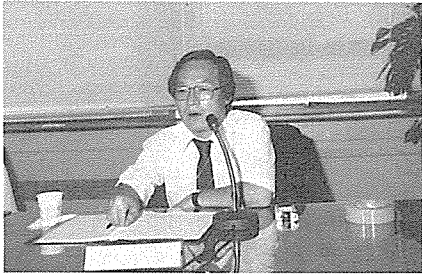
司 會 - 저회분과 위원회에서도 언급된 사항이지만 만약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를 완전히 독립적인 분야로 취급한다고 가정할때 건축가의 디자인 의도와 작품에 대한 열성 문제가 결여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건축사 사무실 자체로서 인테리어를 확보했을 경우 현실정을 볼때 경제적인 문제가 야기되어 결론 짓기에는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김성국 교수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金成國 - 미국의 경우 건축은 어느 일정 자격을 갖춘자만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실내디자인인 경우에는 등록만하면 행위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조성렬씨가 말씀하셨듯이 “인테리어 데코레이션” 혹은 “인테리어 디자인”이라 칭하는데 벽지의 색깔이나 카펫 등으로 끝내는 것을 통칭해서 데코레이터(Decorator)라 하고 건물전체 기본성격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를 디자이너(Designer)라 합니다. 일단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지면 건축가가 모든 것을 하길 원하죠. 아무래도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건축가와의 설계에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결국 미국의 경우를 보면 건축과 인테리어는 사무실이나 일반 건축물외에는 뚜렷한 구분없이 추진해나가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司 會 -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손석진 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정수...건축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이란 개념은 다 원화 되어서 존재하기 마련이지 한계를 두고 업무를 소관한다는 것은 좀...



조성렬...유럽쪽에서 쓰고있는 '인테리어 아키텍처'란 말이 인테리어 디자인의 업무영역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말이 아니냐...

孫錫辰 - 20여년동안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책을 통해서도 아직 인테리어 디자인과 건축과의 범위를 뚜렷하게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단지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의 업무범위를 쉽게 얘기한다면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 벽지를 바르는 것이 아니냐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테리어 디자인 영역이 전문영역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司 會 - 과거 학교에 몸을 담고 계셨고 작품도 많이 하셨던 원정수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元正洙 - 지구상에서 인간이 활동하면서 존재하는 이상은 건축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이란 개념은 다원화되어서 존재하기 마련이지 한계를 두고 업무를 소관 한다는 것은 지역적이나 문화적인 배경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 좀 무모한 착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대물결에서 새로이 탄생한 기적적인 작품인 미국도 항상 새로운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뒤덮힐줄 알았는데 역시 변화하는데 있어서는 당장 중요한 풍토와 흐름이 저변에 있고 서서히 시간에 맞추어 밀어내면서하는 신진대사의 역할이지 우리같이 문제를 역조시키면서까지 무대를 뒤바꾸는 그런 시대적인 양상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尹承重 -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은 서로 구분할 필요가 없고 구분도 잘 안되지만 서로 전문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이

너가 독립된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입주자의 요구조건에 의해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실내공간에 구체적인 이용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고, 두번째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됐을때 디자인으로서의 역할과 건축가가 모집한 공간을 재창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세번째는 인테리어로서 중요한 부분이 실지로 쓰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건축에서 손을 못쓰는 부분을 더 세분화하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이러한 일까지 종합해서 할 수 있을때 인테리어가 독립된 직무를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文信珪 -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분리한다는 것은 어렵고 분리한다해도 이것은 직업상의 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실 건축사가 실내디자인까지는 너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분리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현시점에선 어렵고 현재 작업이 서로 많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건축을 완성하기는 어려우므로 여러분야의 전문가가 팀웍을 이루어 작업을 할때 이 팀웍속의 한 분야가 인테리어가 아니냐고 판단되고 이것은 직업조건 밖에 안되므로 직업상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司 會 - 지금까지 실내디자인에 대한 정의, 업무한계 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내디자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인테리어 디자인의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쉽게 풀릴것 같은데...

趙聖烈 - 여러 의견을 들어 보면 건축이 인테리어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이 갖고 있는 과제는 건축의 질향상에 있다고 전제 했을때 건축의 질향상은 단적으로 2가지로 요약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면의 해결, 또 하나는 감상적 요구의 충족 이렇게 2가지로 놓고 보았을때 사실 인테리어 디자인이 그러한 측면에서 건축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당장 건축의 마스터 플랜에서 공간계획(Space Program)을 과연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한만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쇼핑 센터를 놓고 보았을때, 각 부분의 면적배분, 적정면적의 산정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하는 겁니다. 고층건물이 세워지면 건축주의 요구가 지하층에는 상가를 두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업건축에서도 첫째 요건이 판매증대, 투자효율로 연결되는 설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에서 그러한 디테일한 프로그램과 설계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사실 인테리어들이 이러한 면에서 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의 질향상을 위해서는 인테리어 디자인은 하나의 독립된 전문 영역으로서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건축가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협력을 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에 대하여 실제로 사례 연구를 해보면 인테리어 디자인 업무를 수용할 건축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프로그램과 정서부터 연구용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볼 때 인테리어 디자인



유경철...건축분야의 건축사보다는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야에도 있어서 실무 경력을 일정기간 쌓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정식...인테리어도 건축가들과 더불어 공동작업
이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
리나라는 이 양자가 분리되어...**



의 역할은 건축물의 질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司 繪 - 그러면 다음으로 실내디자인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사실상 한국의 실내디자인 교육은, 부재하다고 말씀드려도 크게 어긋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실내디자인을 이끌어 가시다시피 한 분들이 대개 여기에 와계십니다만 건축과를 나오셔서 실내디자인 쪽으로 방향을 바꾸신 이런 분들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앞으로의 실내디자인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는 것이며 또 외국에선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 부탁 합니다.

金成國 - 우리나라도 있긴 있습니다. 홍익대의 산업대학원이나 환경대학원에서 디자인이란 별도의 과는 없지만 수업과정 중에 한과목으로 삽입이 되는데 외국의 예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건축은 건축대학에 독립되어 있고 학부과정이 나중에 자격시험 관계 영향이 없는건 아니지만 의과나 법과 과정처럼 5-6년정도 됩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디자인은 대부분의 경우 4년제 일반 대학교과정에서 미술의 기본적인 요소서부터 시작해서 실내설계 과제를 다루면 과정이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이 요즘들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공부하는 과정이 공간 개념이 다양화 됐고 현지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꼭 학교에서 정규과정을 배웠다기 보다는 그 분야

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기초교육 과정을 배운 다음에 실무하면서 인테리어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司 繪 - 윤승중 소장님께서 인테리어 교육에 대해서 대학 강의를 통해 실감하고 계신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 나가야 인테리어들이 건축가들과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이 될런지요?

尹承重 - 제가 인테리어 디자인 교육은 학교에서 따로 가르쳐 본적이 없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상당히 광범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서 이해하고 실내가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훈련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여러가지 분야 즉 건축이라든가, 응용미술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기초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적성에 맞도록 선의적인 활동을하는 과정에서 전문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랬을 때 어떤학부가 아니고 대학원 과정에서 분할시킬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趙聖烈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교육의 문제는 2가지 측면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배치해야겠다는 교육의 목표가 우선이나, 학교 장사가 우선이나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3개 대학의 대학원과정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이 있고 2개 대학이 디자인 전공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의 목표를 이상적으로 달성하려면 학생의 선발과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하고 커리큘럼 그 자체가 그것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것은 건축과 4년 과정을 마침으로써 기초과정을 깨우치고 대학원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과정을 이수하면 소기의 달성을 이룰수 있다고 봅니다.

俞景哲 - 대학의 교육과정인 4년이 좀 짧은 느낌이 드는데 과연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고 건축사 사무실에 입사해서 얼마만큼 소화를 시킬지는 좀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건축분야는 건축사 보라는 제도에 의하여 실무 경력을 쌓아 그나마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는 있는데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마찬가지로 그런과정이 있었으면합니다. 모든 디자이너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단지 디자인에 관한 감각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낮다고해서 기초도 없이 나름대로 사무실을 개설하는 행위는 곤란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孫錫辰 - 일본의 경우 재작년부터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에 자격제도가 생겼는데 예전에는 일본도 국내현실과 같은 과정을 거쳤답니다. 우리도 이러한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司 繪 - 실내 디자인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성의있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속에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성국...미국의 경우를 보면 건축과 인테리어는
사무실이나 일반 건축을 외에는 뚜렷한 구분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